

고사와 불

팔거지악[八去之惡]

글_ 김 동 일(방재시험연구원 교수·소방기술사)

옛 날 우리의 제도나 관습은 여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칠거지악(七去之惡)」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결혼한 여자가 행하여서는 안 되는 일곱가지 죄악을 정하고 이를 터부시한 것이다. 칠거지악은 ▲시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것(不順父母) ▲무자식(無子) ▲부정(不貞) ▲질투(嫉妬) ▲못된 병(惡疾) ▲수다(多言) ▲절도(竊盜) 등으로서, 요새 말로 하면 합리적인 이혼사유가 되는 항목들이다.

그렇지만 아내를 함부로 내쫓지 못하는 이른바「삼불거(三不去)」도 있었다. △첫째, 돌아갈 친정이 없을 때 △둘째, 아내가 부모의 삼년상(三年喪)을 치렀을 때 △셋째, 여자가 집안을 일으켰을 때가 이에 해당된다. 아무리 남성 우위의 시대였다고 하지만 가족제도의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는 여전히 중시되었기에 까닭 없이 이혼을 하는 자에게는 태형(笞刑)으로 다스렸으며, 삼불거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강행하는 자에게 또한 엄한 벌을 내렸다.

칠거지악과 남존여비 사상의 피해자로서, 소문나게 이에 항거하였던 여인이 있다면 다름 아닌 “어우동(於宇同)”일 것이다. 조선 중기 사대부 집 규수였던 어우동은, 신분은 낮지만 맘 맞는 사내와 사랑을 나누었으나 부모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집안의 요구대로 왕실의 종신(宗臣)에게 시집을 가지만 대를 잇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고, 이에 따른 양반계급의 횡포에 분노를 느껴 시집을 뛰쳐나와 죽음을 택하나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유지한다. 그 후 기생이 된 어우동은 자신의 육체를 미끼로 양반들을 자신의 성적 노예로 만들며 잘못된 역사의 인습에 항쟁을 시작한다. 그녀를 거쳐간 수많은 양반들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가면서...

새 천년을 맞으며, 지난 천년간 우리 역사에서 분야별로 최고의 것을 가린 한 조사에 의하면 서기 1135년 묘청의 난을「가장 아쉬운 사건」으로 꼽았고, 조선 태종이 넷째 아들 세종을 선택한 것을「가장 현명한 일」로 뽑았다. 「최고의 로맨스」는 황진이와 서경덕이 차지하였으며, 어우동 사건은 역대「최고의 스캔들」로 선정되었다. 그녀의 개인 생각과 야한 매력 모두가 최고로 선택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칠거지악도 부족하여 팔거지악(八去之惡)이 생겨났는데, 이는 시부모에게 찬밥을 드리면 소박맞을 조건이 된 다하여 추가된 것이리라. 우리의 선조 들은 음식이 차고 더운 데 대한 가치 비중을 크게 달리하였다. 그러기에 시집 온 며느리는 계절을 불문하고 매 끼 더운밥을 지어 올리도록 요구받았던 것이다.

한식(寒食) 문화권인 독일에서 “뜨거운 감자요리”는 곧 눈치밥을 뜻하지만, 반대로 난식(暖食) 문화권의 종주국인 우리 나라에서 “찬밥”은 문자그대로 찬밥신세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FILK)